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육사세례식 · 성찬식 27일(토) 집례

금년도 우리 교회 후원으로 열리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이 이달 27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육사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례식은 1999년도 입학한 59기 육사생도들의 입교(入校)와 함께 열리는 것으로 신입생도 70명과 재학생도 10명 등 육사생도 80명, 근무 지원부대 소속 신우 50명, 일반 성도와 학생이 입교자를 포함 15명 등 총 150명이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교회에서는 이번에 세례식 집례뿐 아니라 세례식에 앞서 카지는 세례자 교육, 예배 진행과 친교·다과회도 돕게 된다.

한편 우리 교회에서는 민족복음화의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는 군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비전 2020운동’이란 2020년까지 모든 군인이 복음을 듣게 하자는 운동이다. 숫자상으로 볼 경우, 한 해 군에 입대하는 남자 약 22만

명이 세례를 받게 되면 25년 동안 500만 명이 신자화될 수 있다. 그들이 가정을 가질 경우, 고벨로 가정에서 보듯 효과적으로 가정복음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1996년 현재 1200만 신자(인구 4500만의 25%)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2020년에는 3700만 신자(인구 5000만의 75%이상)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된다는 계산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군복음화는 세계 선교를 위해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과소하고 있는 선교사는 기독교인

교인 수의 0.04%에 해당하는 3,000명에 이른다. 이것이 2020년에는 한국 기독교인의 0.1%에 해당하는 30,000명에 달하는 선교사의 파송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욱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상황하에서 군복음화는 복음의 능력으로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인민군 100만 장병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교회는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1993년 이후 해마다 진중세례식을 주관하고 있다.

### 제 5학기 서울성경대학

등록비는 과목당 오천 원이며 이번 학기 첫 수강자의 등록비는 입학금을 포함하여 일만 원이다. 문의는 사무국.

### 서울성경대학 제 5학기 교과과정표(3~6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서울 성경 대학	야고보서	월요일 오후 8시	지혜영전도사	3월 29일
	말라기	화요일 오전 6시	박귀환 목사	3월 30일
	고린도전서	화요일 오후 8시	이성득 목사	3월 30일
	느헤미야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월 1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8시	허희철 집사·인진선 선생	4월 1일

### ■제언 :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박두호(장로, 차량관리부)

올해 초부터 우리 교회가 주일에 사용하는 주차장에 이름을 붙였다.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교회도 알리고, 주차장마다 표시를 함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찾을 뿐 아니라 질서있고 효과적인 관리에도 유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주차장의 이름은 우리 교회 여섯 개 찬양대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 1. 할렐루야 주차장(교회앞)
- 2. 임마누엘 주차장(교회지하)
- 3. 가브리엘 주차장(쌍부)
- 4. 호산나 주차장(교회옆)
- 5. 베들레헴 주차장(LG패션옆)
- 6. 시온 주차장(한일은행)

주일 아침이면 18명의 차량부 요원들은 바쁘다. 교회 앞 횡단보도에 “우선멈춤” 교통표지판을 세우며 우리 교회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팻말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한다. I·II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이나 교회학교 학생들,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소망부 어른들을 돕기 위해 횡단보도 안내도 맡았다. 우리 차량관리위원들은 좁은 주차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주일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의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금 다짐하면서 몇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주일 하루종일 주차하시는 성도는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시온주차장과 베들레헴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란다. 임마누엘주차장은 이른 아침 당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양보하시며 할렐루야주차장과 가브리엘주차장은 새가족들과 처음 교회에 오시는 성도, 예배에 가끔 늦으시는 성도들이 예배에 지장을 받지 않게 양보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교회에는 여섯곳 주차장과 교회앞 차도까지 180여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가장 많이 참석하는 II부 예배에는 차량이 넘쳐 주차난이 심각하다. 더구나 몇 주 전부터는 교회 옆 건물(호산나 주차장)이 대형 의류매장 임대료 30여대의 주차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교회 앞 차도와 인도에까지 2중 3중의 주차를 함으로 지나가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 까지 불편을 드리고 있어 덕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을 임대 사용하고 있다. 매월 지급되는 주차장 임대료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 주일에는 온가족과 더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어떠실지. 특별히 교회와 인접해 사시는 성도, 버스편이나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신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주차 임대료를 절약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어려운 교회 건축을 재정적으로 돕는 한편 멀리서 오시는 성도와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하셨으면 좋겠다.

이사야 강해

구스에 대한 경고

이사야 18장 1-7절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앗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어서 구스 곧 에티오피아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시 구스는 아프리카의 강대국으로 애굽까지 지배한 큰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구스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치기 위해 연합했던 이스라엘이 수리아와 더불어 앗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제는 유다까지 점령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스 왕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빠른 갈대 배에 사신을 대워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 유다에게 앗시리아에 항복하지 말고 구스와 더불어 대항하자고 권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구스의 사신을 본국으로 보내며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 곧 구스의 날개 그늘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스와 유다에 각각 말씀을 전합니다.

1.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조용하심은 떠들고 날뛰는 앗시리아와 저들의 침략에 당황하여 동분서주하는 구스와 유다의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중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말씀의 겹으로 쫓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고요히 입재하십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영적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 혹은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을 터위에 운무와 같다고 했습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원수의 범죤 행위를 방관하시고 덮으십니다. 이 때에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2. 앗수르는 갑자기 망할 것이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3절)이라는 말씀은 앗수르군의 진격을 의미합니다. 그러

나 이것은 앗수르군의 멸망의 예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꺾으실 것이니 구스의 사신은 세상 모든 거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구스의 원조도 받지 말고 동맹 관계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는 앗수르의 멸망을 포도나무에

다. 결국 앗시리아 왕은 패전의 원인을 귀신에게 돌렸고 이 광경을 본 그의 아들이 귀신 당에 들어가 울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앗시리아를 멸망시키실 때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만짐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데...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찢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음이라 그 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이종운 목사



비유합니다(5절). 앗시리아가 승전을 거두고 진군의 열매를 거두기 바로 직전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은 앗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사 37:36-38).

하나님은 추수 때에 내가 낮으로 가지를 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5절). 앗시리아를 멸망시킨 것은 유다나 구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승전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앗시리아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앗시리아의 시신은 들짐승과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신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독수리와 들짐승이 여름부터 겨울까지 그것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6절).

3. 구스에 대한 예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앗시리아를 멸망시키실 터이니 구스를 향하여 두려워 말고 또 경거망동하지도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합니다(7절). 이사야의 이 예언은 10년이 못되어 성취되어 앗시리아가 히스기야 왕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앗시리아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서 신당에 들어갔습니

다. 뿐만 아니라 구스도 예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항상 마지막 승리를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권력이나 돈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지금은 심판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전의 승리를 기뻐하지 말고 심판날을 바라보며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미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받은 은혜 나누어

이진구(목사, 목포성루교회 담임)

“따르릉...”

“여보세요? 성루교회 목사님 맞습니까? 서울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별탈없이 주일을 지내고 아이들 아침 준비까지 다 해준 아내가 갑자기 목이 아프다고 야단을 해서 이리저리 해봐도 안돼 막 병원에 갔다가 들어왔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교회 집사님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아차 싶었지요. 내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었음을 직관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물리 치료 해보고 안되면 정밀검사(MRI)를 찍어 보자는 의사의 말에 걱정이 안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달에 생활비 30만원 그리고 서울교회와 기타 두 곳에서 20만원을 도움 받고 있는 목회자로서 생활고에서 자유함이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고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고 이곳 저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무던히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목포시라는 행정구역을 들먹이면서 도움을 외면했습니다. 뭐가 있어도 있으니까 도시에서 개척을 했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논리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서울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사랑의 손을 펴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선교의 후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이 땅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모든 공을 후원해 준 교회와 기관들에게 돌리고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짧은 지면을 통해 다 기록하지 못하는 개척교회의 실정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굳이 말하자면 첫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다음이 인적 자원의 부족함입니다. 목회자의 열성과 사명을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처음부터 재정의 확보와 인적 자원의 확보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자립교회의 선교는 그 자체가 절대 절명

의 지상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와 기관치고 물질이 남아서 선교하고 후원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관과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마케도나 지역의 교회들이 사랑을 나눔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마10:41)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도움을 받지만 도움을 받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서울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선교를 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중등부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 사랑부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늘 소속 부서의 수련회만 참석했던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좀 색다른 수련회를 경험했다. 중등부 수련회 다음 날 실시되는 사랑부 수련회에 함께 참석했던 것이다. 몸에는 장애가 있지만 누구 못지 않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들의 모습에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 불편한 사랑부 형들과 동생들을 위하여 작은 힘이나마 돕겠다고 거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나였다. 불편한 육체이지만 예배시간에 무엇을 물어 보면 대답도 척척 잘해서 무엇이 장애였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사랑부 형제들의 마음 속에 가득한 행복이 있음을 알았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있으니 말이다. 이 세상에서 정상인이면서 예수님을 떠나사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이번 이 수련회에서 뭔가 다른 은혜를 받고 사랑부 학생들과 더욱 친하게 되었다.

“은 몸으로 드리는 사랑부의 간절한 기도예, 예수님 항상 귀 기울여주세요. 사랑부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임종현-

사랑부에서 봉사한 지도 벌써 두 달. 그간 사랑부 보조 교사로서 나는 매우 큰 은혜를 받았다. 사랑부 친구들은 몸이 불편하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으로 찬양한다.

이번 성경학교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 성경학교가 너무 짧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성경학교에서 난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다. 사랑부에선 난 주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었고,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

- 박재원 -

이번 사랑부 수련회를 통하여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이번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더욱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매순간 웃으며 즐거워 하는 사랑부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 송승준 -

개회예배를 드릴 때부터 내 가슴은 설레었다. 중등부가 아닌 사랑부 수련회가 나를 흥분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주님을

위한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랐다. 또 어머니를 도와 인형극을 해야 했던 난 모든 프로그램에 남다른 각오로 임했다. 주님께 큰 영광이 되길 바라며.

- 김성국 -

내가 사랑부 보조교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수련회. 이번 수련회에는 새로 온 친구들이 많았다. 새로운 친구들이 온 걸 보니 내 가슴이 너무 뿌듯하였고, 이 친구들이 계속 교회에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친구 하나 전도하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러웠다. 수련회를 마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들에게 더욱 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강신혜 -

이번 사랑부 수련회에서 사랑부 학생들이 좋아하는 표정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해줄 수는 없지만 그 만큼 기도했다. 사랑부 학생들은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가르쳐 주고 싶었는지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사랑부 학생들이 건강했으면 1박 2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들과 조금이라도 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뿐이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 임관자 -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 온전히 드러 뜨거운 힘을 얻고

김나영(청년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끔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다. 이런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난 청년부 동계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겨울의 꼬트머리를 잡은 짧은 2월의 마지막 날, 우리 청년부는 경기도 일영, 순례자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고쳐주소서”라는 기도 제목 아래 우린 한 자리, 한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토하며 찬양으로 밤을 밝혔다.

출발하기 전, 이종운 목사님은 현재와 미래의 서울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나아가 한국 기독교계의 지도자와 인도자로 성장해 갈 청년으로서의 사명감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다. 이 말씀을 새기며 구원의 확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세상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 모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는 아픔을 겪고 다시 사는 부활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정홍재 전도사님의 뜨거운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로 나를 못박기 위한 기도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 위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청년의 힘, 이 힘이 뭉쳐질 때 전세계 복음화는 멀지 않으리라 믿는다.

각자의 사회생활과 학업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였지만, 청년과, 열린 성경과, 주님, 기도와 찬양, 주님과와의 대화가 피곤한 육신을 풀어 주기에 충분하였다. 우리가 가졌던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요, 문제 해결의 시간이며, 마

음이 정결해졌던 시간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다.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길은 주님이 피 흘려 몸소 박하신 뜻을 기꺼이 내 몸에 박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되며 끊임없이 그분과 사는 삶이다.

이것을 얻은 이번 수련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전도사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집사님들, 우리의 먹을 양식을 정성껏 준비해주신 권사님... 모두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의 선배님들로서 정말 은혜로우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청년부는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수월함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시 다짐한다. 주위의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것이라고.

### 선교지 통신

## “저도 전도할게요” ... “늘 기도해주세요”

### 박종상 선교사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엔 먹을 것을,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을 주면 되지만 하나님의 양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겠지요?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실 모습을 떠올리면 정작 저는 한국에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잘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곳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힘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

되 적어도 5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친구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선교사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초등부 김보연 올림

###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박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매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 개척에 귀한 일꾼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직 선교지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다방면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빌려쓰던 자동차는 돌려주고 새로 중고차를 사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으며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소양 드림

### 동정

- \* 이종운牧사는 8일(월)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생(박사학위과정)에게 “신약에 있어서의 선교신학”을 주제로 이번 학기 강의를 시작한다. 11일(목)에는 비전2020운동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회 정기이사회,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 루디아 제 1전도회는 8일(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정해진·이애자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4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군복음화와 육사세례식을 위해
2.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제 5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3. 겨울 수련회·성경학교가 결실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